

무등일보

“평범한 농사꾼으로 제2인생 설계”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퇴임

김용봉(60)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이 최근 정년 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전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김용봉 차장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6년 동안 일한 전남도체육회와의 인연을 접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는 퇴임 후 고향(무안군 해제면)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계획이다.

그는 95년 교단을 떠나 무안군 농민회 지도위원, 민주당 무안·신안 지구장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06년 11월부터 전남도체육회 총무부장으로 체육계와 첫 인연



을 맺었다.

그는 지난해 6월 사무처 직원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사무차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8년 31년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 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

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에 비해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다”며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를 잊지 않고 삶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석기자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정년 퇴임

6년간 체육회 근무... ‘제 2인생’ 설계

전남도체육회 김용봉 사무차장(60)이 정년 퇴임했다.

김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11시30분 전남체육회 회의실에서 정년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체육회 생활을 마쳤다.

김 사무차장은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보다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특히 6년간 동고동락한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예를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퇴임 소감을 밝혔다.

1976년 전남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1977년부터 무안 해제중에서 교육자의 길을 접어든 김 사무차장

은 1995년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단을 떠났다.

김 사무차장은 2006년 11월 전남도체육회 총무부장으로 체육계와 인연을 맺었다.

2008년 31년 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김 사무차장은 전남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차장은 지난해 6월 사무



처 직원으로는 최고의 자리인 사무차장으로 승진했다.

김 사무차장은 퇴임 후 고향인 무안 해제면에서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계획이다.

김 사무차장은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전남 체육회가 변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연 기자 sy passion@

남도일보



“평범한 농사꾼 되겠다”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정년 퇴임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60)이 6년여의 고락을 뒤로한 채 정년 퇴임식을 갖고 정년 체육회를 떠난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전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사진>

이로써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6년 11월 1일 입사한 후 6년여동안 함께한 전남도체육회와의 인연을 접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 후 고향(무안군 해제면)에 안착해 대학 전공을 살린 농사일로써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1976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뒤 1977년부터 무안 해제중학교에서 교육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당초 생각했던 후학양성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생기면서 18년만인 지난 1995년 교단을 떠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이후 무안군 농민회 지도위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김용봉 사무차장은 민주당 무안·신안지구장 부위

원장, 한화갑 국회의원 사무장 등을 통해 지역 정가와 더욱 폭넓은 유대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인연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 전남도체육회 총무부장으로 체육계와 첫 인연을 맺게 됐다.

평소 온화한 성품에 바탕한 직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강조한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11년 6월 사무처 직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사무차장으로 승진하는 명예를 안았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에 비하여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음에 감사하다”고 회고한 뒤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없었던들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고, 오늘의 영예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되돌아봤다.

김 사무차장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주인의식속에 매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전남체육회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신광호 기자 shgh@namdnews.com

호남매일

도체육회 김용봉 사무차장 정년 퇴임

6년간 동고동락... “89체전 성공 개최 보람”

김용봉 사무차장(60)이 전남도체육회와 6년여의 고락을 뒤로한 채 정년 퇴임식을 갖고 체육회를 떠난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25일 전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도청,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



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로써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6년 11월 1일 입사한 후 6년여동안 함께한 전남도체육회와의 인연을 접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 후 고향(무안군 해제면)에 안착해 대학 전공을 살려 농업에 종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년 퇴임식은 김용봉 사무차장의 약력 소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의 공포패,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의 재직기념패를 포함한 사무처 임·직원 일동의 재직기념패, 기념품, 꽃다발 증정, 송별사(전승현 사무처장), 퇴임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6년 11월 전남도체육회 총무부장으로 체육계와 첫 인연을 맺은 이후, 지난해 6월 사무처 직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사무차장으로 승진하는 명예를 안았다.

특히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8년 31년만에 전남에서 개최된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전남 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음에 감사한다”며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없었던들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고, 영예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되돌아봤다. /박정렬 기자

남도매일

“체육 인연 접고 농사꾼 되겠다”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25일 정년 퇴임
전남과 6년 동고동락... 89체전 성공 개최 보람

김용봉 사무차장(60)이 전라남도체육회와 6년여의 고락을 뒤로 한 채 정년 퇴임식을 갖고 정든 체육회를 떠났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전라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도청, 도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및 가맹 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로써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6년 11월 1일 입사한 후 6년여 동안 함께한 전라남도체육회와의 인연을 접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 후 고향인 무안군 해제면에 돌아가 대학 전공을 살린 농사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계획이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1976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뒤 1977년부터 무안 해제중학교에서 교육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당초 생각했던 후학 양성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생기면서 18년만인 지난 1995년 교단을 떠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이후 무안군 농민회 지도위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김용봉 사무차장은 민주당 무안·신안지구장 부위원장, 한화갑 국회의원 사무장 등을 통해 지역 정가와 더욱 폭넓은 유대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인연을 통해 지난 2006년 11



김용봉 사무차장 정년 퇴임식

월 전라남도체육회 총무부장으로 체육계와 첫 인연을 맺게 됐다.

평소 온화한 성품에 바탕한 직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강조한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11년 6월 사무처 직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사무차장으로 승진하는 명예를 안았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8년 31년만에 우리도에서 개최된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뛰어난 역할을 발휘해 전남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

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에 비하여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음에 감사하다”고 회고한 뒤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없었던들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고, 오늘의 영예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되돌아봤다.

김 사무차장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주인의식 속에 매사 자발적이고 능

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전남체육회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전승현 사무차장은 송별사에서 “김용봉 사무차장은 6년여의 짧은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체육 사랑’으로 전남 체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었고, 아울러 직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강조하여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었다”고 치하했다.

/최기휴 기자

남도특레이

김용봉 사무차장 정년 퇴임 “평범한 농사꾼 되겠다”

전남도체육회와 6년 동고동락... 89체전 성공 개최 보람

김용봉 사무차장(60)이 전남도체육회와 6년여의 고락을 뒤로 한 채 정년 퇴임식을 갖고 정든 체육회를 떠났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25일 오전 11시30분 전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도청, 도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로써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6년 11월 1일 입사한 후 6년여 동안 함께한 전남도체육회와의 인연을 접고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 후 고향(무안군 해제면)에 안착하여 대학 전공을 살린 농사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년 퇴임식은 김용봉 사무차장의 약력 소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의 공로패,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의 재직기념패를 포함한 사무처 임·직원 일동의 재직기념패, 기쁨품, 꽃다발 증정, 송별사(전승현 사무처장), 퇴임 인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봉 사무차장의 약력을 소개하면,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1950년 11월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에 소재한 매곡부락에서 태어나 1976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뒤 1977년부터 무안 해제중학교에서 교육자의 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당초 생각했던 후학 양성에 대한 소신에 변화가 생기면서 18년만인 지난 1995년 교단을 떠나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경험해야 했다.

이후 무안군 농민회 지도위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김용봉 사무차장은 민주당 무안·신안지구장 부위원장, 한화갑 국회의원 사무장 등을 통해 지역 정가와 더욱 폭넓은 유대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인연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 전남도체육회 총무부장으로 체육계와 첫 인연을 맺게 됐다.

평소 온화한 성품에 바탕한 직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강조한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11년 6월 사무처 직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사무차장으로 승진하는 명예를 안았다.

특히 김용봉 사무차장은 지난 2008년 31년만에 우리도에서 개최된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뛰어난 역할을 발휘해 전남체육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에 비하여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음에 감사하다”고 회고한 뒤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없었던들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고,

오늘의 영예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되돌아봤다.

김 사무차장은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태산같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주인의식 속에 매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전남체육회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김 사무차장은 마지막으로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전남 체육을 잊지 않고 곁에 머물면서 살아가 것이며, 떠나는 저의 뒷모습이 모든 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송별사에서 “김용봉 사무차장은 6년여의 짧은 근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체육 사랑’으로 전남 체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었고, 아울러 직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강조하여 화목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었다”며 “김용봉 사무차장의 떠나는 뒷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어 걱정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승현 사무처장은 어느 일간지에 기고된 95세 어른의 수기를 인용하면서 “60세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제2막’을 후회없게, 알뜰하게 설계해 가기를 학수고대한다”는 당부의 바람도 잊지 않았다.

김병요 기자

전남일보

“전남체육 발전 각자 위치서 최선을다하자”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정년 퇴임

김용봉(60)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이 정년퇴임했다.

김 사무차장은 25일 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도청, 도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2006년 11월 1일 총무부장으로 입사한 김 사무차장은 6년여동안 함께한 도체육회와의 인연을 접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 사무차장은 지난 2008년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 제89회 전국체육대회와 2009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 개최에 큰 역할을 했고, 전남 체육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에 기여한 업적에 비하여 훨씬 더 큰 보답과 혜택을 받았음에 감사하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태산같은 자부심



김용봉(앞줄 왼쪽 두번째)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이 정년 퇴임식 뒤 체육회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을 갖고 항상 주인의식속에 매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전남체육회가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한편 김 사무차장은 퇴임 후 고향인 무안군 해제면에서 농사일로 ‘인생 2막’을 열 계획이다.

고강인 기자 kiko@jilbo.com

광주매일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 정년 퇴임

김용봉 전남도체육회 사무차장(60)이 25일 정년 퇴임식을 갖고 6년간 정든 도체육회를 떠났다.

김용봉 사무차장은 이날 전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도청, 도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및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지난 2006년 11월 전남도체육회와 인연을 맺은 김 사무차장은 평소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져 2011년 6월 사무처 직원으로는 최고의 영예인 사무차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김 사무차장은 31년만에 전남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체육대회(2008년)와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2009년)를 성공적으로 치러 전남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사무차장은 퇴임사에서 “그동안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것 보다 받은 게 너무 많아 감사 드린다”면서 “비록 몸은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전남 체육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임제만 기자 icm@kdaily.com